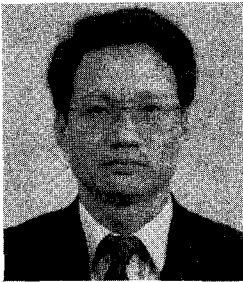


## 정부는 자금지원을 신중하게 생각하라

- 18개월의 극심한 불황과 시 피해를 겪으면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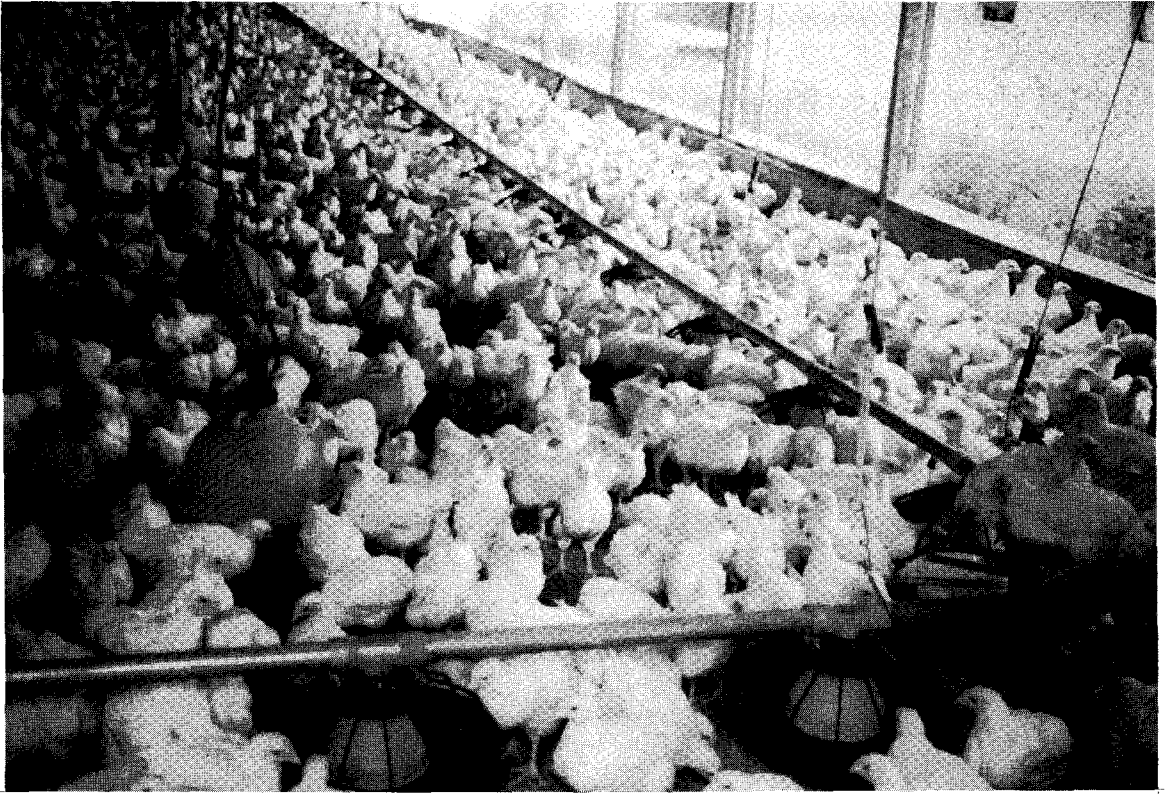
김 태 환  
(계립농장 대표)

1997년 말 한국경제가 IMF 통제하에 들어가면서 육계업계는 혹독한 불황을 잉태하였다. 사료가격 폭등, 폭발적인 이자율 증가 등 실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다. 결국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임신기간 10개월만에 성(性)이 바뀌어서 장기 호황을 순산하였다. 생계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아울러 초생추 가격도 실로 오랜 기간동안 호황의 연속이었다. 물론 닭고기 수입량도 그다지 많지도 않은 시기였다.

아뿔싸!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들이 쏟아졌고, IMF 조기 탈출이다, 금강산 관광이다 뭐다하면서 온 국민이 들떠 있었으며,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다시 국내 육계업계에 깊고도 깊은 불황을 예고하는 서막이 올랐다.

유사이래 처음으로 육용원종계 수입량이 국내 육용종계 예상 필요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종계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닭고기 수입량이 국내 닭고기시장의 25% 내외를 잠식하면서 굳혀지기에 이르렀다.

모든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고, 타협도, 격정도, 강제도 없었으며 모두가 의사 결정 주체의 권리요 책임이라고 치부하고 말았다. 이때 가장 나쁜 구조가 만들어졌으니 계열화 업체들 대부분이 닭고기 판매량 대비 생계 자금율이 종계 확보량 측면에서 볼때 100%를 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계열화업체들은 호황기를 지나면서 엄청난 금액을 지원해가면서까지 육계 사육농가 및 종계 사육농가 확보에 혈안이 되었으며, 이 구조는 1~2개 계열화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바, 어느날 갑자기 불황기가 닥쳤을 때 생산감축 유연성이 없음으로 인해 자사는 물론 타사를 포함하여 전체 육계업계를 헤어나 오기 힘든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말았다. 즉, 브레이크 장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계열화 업체간 사생결단의 싸움이 벌어졌고, 그 결과로 IMF 위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지루한 불황이 1년 6개월이나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나마 자연스런 구조조정 기회가 더러 있

었는데, 그 때마다 정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지원과 자금지원을 계속했으니 국내 육계업계는 깊은 왜곡의 계곡에 던져지고 말았다. 아니 개천에 내팽개쳐졌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지도 모른다.

급기야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우선 원종계 수량을 조절하고, 연이어 종계수량을 조절하면서 살모넬라 감염계 강제도태, 강제 환우금지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필요한 씨앗을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업계 관련자들이 환영해 하지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원종계 감축이 먼저 시행되었다. 이제 잘만 하면 국내 육계경기는 원종계 감축시점 이후 금년 하반기부터는 비교적 안

정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원종계 감축안 시행후 열의를 가지고 연이어 종계감축에 나섰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중순경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정부와 업계를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제 이 나라 육계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이다. 악의적인 의도였는지 무식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나라 언론은 일단 폭격을 해 댔으며, 계속 소비가 70%까지 감소되는 사상 초유의 육계산업 공황 상태가 발생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진정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농림부에서는 종계감축 추진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업계는 예외없이 소비에 맞추어 생산을 조절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각자가 계산이 달랐던 것이다.

당초 종계감축안의 골자는 현재 사육하고 있는 종계를 모든 주령별로 10% 감축을 하자는 것이었는데, 황당하고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가장 큰 업체부터 너무도 비협조적이었다.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한 업계의 패해는 깊어만 가고, 정부도 현실상 여러가지로 다급한 나머지 주령에 관계없이 당초 목표량을 감축하는 선에서 우선 일단락을 짓기로 하고, 당장 문제가 되는 시급한 문제들 처리에 관심이 분산되었다.

TV나 신문 등 언론들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국적을 찾은듯, 다행스럽게도 소비가 원상 복구 되는 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아직 안심해서는 안되고 전혀 엉뚱한 문제로 인하여 소

비가 주춤하거나 만일 다시 하락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육계업계는 품비박산이 날 것이고 가장 우려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라도 하면 육계업계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우리 업계관련 모든 종사자들은 기회주의자를 골라내서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더이상 정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행동으로 보여야만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차제에 원종계 감축 당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고, 선심성·특혜성으로 의심되는 직간접의 자금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조금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번에 정부가 HPAI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의적절한 조치와 지원이 끝났다고 보며 오히려 HPAI발병 확인 시점 이후에도 계열화 업체들이 무리하게 사육한 생계에 대해서도 수매하여 주었던 만큼 현재 추가자금지원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오히려 향후 재발하거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가 피치 못해 지원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때 지원해줄 명분을 잃게 될 것이 우려된다.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발생시점 이전의 1년 6개월 동안 업체 스스로 자초한 손해에 대해서 지원한다고하면 농림부는 앞으로도 큰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 자명한 바, 국민의 혈세로 경영을 잘못된 기업의 회생을 위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인 만큼 국정감사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무조건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 대부분의 계열화업체들의 구조

로는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삼장통합의 장점이 우리나라 계열화업체의 수익구조하에서는 전혀 장점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점과 병폐가 더 큰 실정이므로 계열화업체의 수익구조가 선진 외국처럼 바뀔때까지는 현재와 같은 수직계열화는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불경기나 인플루엔자와 같은 돌발변수가 생겨 소비가격감하게 되면 생산량 조절 유연성이 떨어져서, 해당 업체들은 물론 전체 육계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판매량 대비 생계자급율을 50~60% 미만으로 가져야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농림부가 전체 육계업계와 관련산업의 안정을 위하여 현재 계열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종계를 과감하게 감축시키고 감축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원하

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업계가 농축산물의 가격형성 원리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면관계상 다음기회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장기간의 극심한 불황과 HPAI 피해가 정부 및 우리 업계에 주는 교훈을 이번 기회만큼은 냉정히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육계업계를 살리려면 정부는 이제 구경꾼이 되어야 한다. 이제 정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정책을 기대하며 천직으로 알고 양계업을 영위하는 선량한 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양계

# 생석회 ♠ 소석회

- ♣ 산성폐수 및 오수정화
- ♣ 축사소독 및 악취제거
- ♣ 총란 및 병원균 살균
- ♣ 유기질 분해촉진
- ♣ 산성 토양 개량(pH안정)

\*\*\*\*\*

**영월석회공업사**

사무실 :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원리 250번지  
 전 화 : (033)372-5837, 5618, 팩스 : (033)372-5889  
 전 화 : (033)372-5296, 6878, 야간 : (033)372-5293